

# 해남군, 기화-교육발전 '양대특구'로 지역소멸 적극 대응

### 수도권-비수도권 교육 격차 해소...지자체 등 종합지원 체계 구축 교육혁신·지역 인재 양성...지방시대위원회, 이달말 시범지역 지정

해남군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일환으로 기화발전특구에 이어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총력을 쏟고 있다.

해남군은 최근 전남도와 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교육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과 함께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지역협력체 구성 업무협약을 갖고 교육특구 지정을 위해 적극 협력기로 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정주에 대한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해 각종 규제의 완화,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교육개혁 과제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화발전특구와 더불어 양대 특구로 일컬어지고 있다.

교육부 주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7월말 결정된다.

해남군은 해남으로 돌아오는 그린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주제로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고품질 늘봄 돌봄체계 구축 ▲교육과정 혁신으로 공교육 신뢰도 향상 ▲지역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체계 구축 ▲정년정주도시 그린일자리 창출 등 전략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해남군은 지난 6월 기화발전특구에 2개소가 지정되면서 글로벌데이터센터와 해상풍력 기자재단지 조성을 위한 첨단기업들의 입주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관련 분야의 인재양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기화발전특구는 물론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및 탄소중립 에듀센터와 녹색융합 클러스터, 수산기재자양식 클러스터 등 대규모 국책사업



해남군은 지난 6월 전남도와 도 교육청, 연구기관 등과 함께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지역협력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남군 제공)

들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후, 환경, 신재생에너지, 데이터 산업 등 첨단산업의 인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군은 특구운영을 통해 초중 과정에이후부터 그린인재로서의 글로벌 스마트 교육을 생활화 하는 한편 지역고교에는 그린인재 창의융합과정 운영과 고

교 특성과 교육과정 운영, 대학전형 확대와 계약학과 운영 등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플랫폼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명 군수도 지난달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 우동기 위원장을 만나 해남군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군 솔라시도기업도시에

는 3000억원 규모의 첨단전략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히 기화발전특구 지정으로 그린인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일자리와 교육이라는 놓여준 지역의 가장 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구 유입 방안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무안군, 하반기 공공요금 3종 동결

###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고물가 경제부담 완화

무안군이 고물가로 인한 경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3종,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 요금을 동결한다.

이번 결정으로 상수도는 2017년 이후 7년간, 하수도는 2019년 이후 5년간 요금 동결이 이어지며,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간 추가 유예된다.

특히 하수도요금은 생산·처리단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재정건전성 확보, 낮은 요금 현실화 등에 따라 당초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상급기관의 물가안정 정책과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고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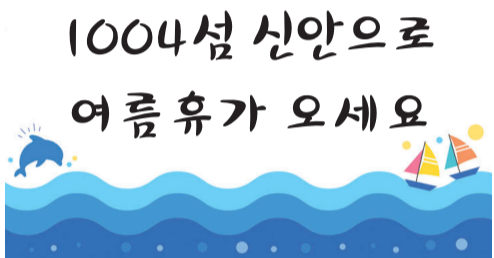
유예를 결정했다.

무안군은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 물가 품목 72종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등 물가 관리에 나서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공공요금 동결로 군민 가계경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요금 안정관리를 함께 물가안정을 유도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주옥 같은 섬 육지화...여행·문화·레저 '힐링 그 자체'



### 중부권(압해·암태도 등 5곳)

압해도 분재공원 사계절 인파 자은도, 아름다운 해변 최다 보유 퍼플섬·세계 화석광물박물관 등 계획 없이 떠나도 볼거리 풍성



자은도 '1004 뮤지엄파크' 전경.

신안의 중심지인 중부권은 압해도-암태도-자은도-팔금도-안좌도의 연도교와 천사대교가 개통되면서 육지화되어있어 5개 지역을 차량으로 순차적 돌릴 수 있는 최상의 권역이다.

중부권은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예술박물관과 전시관 등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평소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압해도는 신안군청 소재지로 힐링의 송곳날 들레길과 분재공원, 동서리 선돌, 금사산 등이 유명하다.

애기동백 숲과 크로코스미아 꽃길의 1004분 재정원은 각 섬에서 수집하고 기증받은 1000여 점의 명품 분재와 아프리카 쇼나조각 작품이 함께 펼쳐져 있다.

또 분재원, 미니수목원, 야생화원, 장미원, 유리온실과 최병철 분재 기념관과 한국화의 거장인 우암 박용우 화백의 작품 126점과 소장품 85점 등도 전시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북카페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저녁노을 미술관은 잠시 휴식처로 이용할 수 있고, 1004분재정원은 사계절 내내 인파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하얀 눈위에 피어오르는 애기동백은 겨울에 장관을 이룬다.

신안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아름다운 해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혜로운 자은

도이다.

자은도의 '1004 뮤지엄파크'는 해양 복합 문화 관광 단지로 해상 양양해변 50만㎡에 특색있는 테마수석정원, 수석미술관, 신안자연생물원 구원, 세계 조개 박물관,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등이 갖추어져 있다. 신안 관광의 필수 코스로 가보지 않으면 후회할 곳이다.

이 뮤지엄파크는 바다를 품은 휴양 숲 공원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은 현대인의 휴식공간으로 일몰 또한 환상적인 명소이다.

파도와 바람이 빚어 놓은 260여 점의 수석을 최신식 기술을 집약한 수석미술관이 있고, 수석정원은 3000㎡에 이르는 기암괴석과 200여 종의 야생화에 100여 그루의 분재 등이 해변과 어우러져 최상의 경관을 연출한다.

또 국내 최대의 조개·고등 전문 조개박물관은 해양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004 뮤지엄파크는 가족이 함께하면서 신비함을 느끼고 자연환경의 중요성과 더 많은 추억을 담을 수 있는 적합한 곳이다.

예술의 섬 수화 김환기 화백의 고향 안좌도는 고대 선사시대 유적인 고인돌과 삼국시대 고분군 등 역사유적이 많은 곳으로, 세계관광기구에

서 최우수마을 선정 외 5곳의 각 기구에서 특색 있는 섬으로 선정된 퍼플섬을 비롯해 세계 화석 광물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퍼플섬은 반월, 박지도라는 섬에서 자생하는 보라색의 도라지 근락지와 꿀풀 등의 생태적 환경을 고려해 목교와 마을지붕, 창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앞치마, 커피잔까지 온통 보라색이다.

이 외에도 어두웠던 일제강점기 악덕 지주에 저항한 치열한 농민운동으로 승리한 역사를 오롯이 담은 '압태 소작인 항쟁기념탑'과 등산하는데 3시간 30분 소요되는 승봉산을 품은 암태도, 갯벌과 염전, 노두, 우실 등의 섬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다.

항암제로 알려진 꾸지뽕과 천일염, 마늘 등 특산물이 다양한 팔금도 등 중부권 전 지역이 연도·연륙교가 건설되어 기상악화와 주·야 관계없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적당한 곳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영암군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 운영



우승희(가운데) 영암군수가 지난 8일 삼호읍 한마을회관에서 열린 '이동 군수실'을 찾은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 주민 의견 군정 반영

영암군은 삼호읍을 시작으로 11개 읍면을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동 군수실'은 주요 군정사업을 설명하고 현장 고충민원 등을 듣는 주민과 소통 공감행정이 일환이다.

지난 8일 삼호읍 한마을회관에서 열린 '이동 군수실'을 찾은 주민들은 대별주거단지-삼호중고

등학교 통학로 인도 설치와 용당리 도로 및 횡단보도 도색, 모질항마을 입구 통관 박스 정비 등을 건의했다. 이동 군수실에는 영암군 각 부서장들도 함께해 주민이 제기한 건의와 제안을 놓고 설명하는 등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민의 소중한 의견과 제안을 듣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주민참여와 소통의 장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 목포시, 화장로 1기 연내 추가 증설

### 6억6000만원 투입...오전 화장 등 우선 예약시스템 도입

목포시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신안군 등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장례편의를 위해 화장로 증설에 나선다.

목포시는 화장로 증설을 위한 국비예산 등을 확보해 2024년말까지 화장로 1기를 추가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목포시에서 위탁 운영 중인 화장장은 지난 2015년 12월에 개장해 6기의 화장로를 가동하고 있으나 전남 타지역 시설에 비해 가동률이 월등히 높아 인근 시군 주민들의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

특히 화장수요의 증가에 따른 3일장에서 4일장으로의 장례비율이 꾸준히 높아짐에 따라 신안 도 서지역의 경우 화장장 이용 불편 민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목포시는 화장로 증설을 위해 국비 3억3500만

원을 확보하고,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6억6000만원 예산을 들여 연내 완공을 목표로 화장로 1기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목포시 추모공원은 화장로 추가설치 공간이 확보된 상태여서 별도 건축물 증축없이 신속하게 화장로 1기 설치가 가능하다.

이번 화장로 1기 증설은 통합을 추진 중인 신안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상생발전 과제로 추진된다.

신안군은 그동안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화장로 이용 편의제공과 농산물 학교급식 구매, 공영버스 목포시내권 운행 확대 등을 요구했다.

목포시는 목포시민과 신안군민이 오전에 화장장을 우선 예약할 수 있는 관내 주민 우선 예약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해양치유 핫플' 완도

### 신지명사십리 개장

고운 모래와 해상 숲, 탁 트인 청정바다를 자랑하는 해양치유의 핫플레이스,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사진)이 오는 13일 개장한다.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국제인증 '블루 플래그'를 5년 연속 획득한 명소로, 올해 개장 기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한다.

해양치유를 주제로 하는 모래 조각품 전시와 플라잉 보드 쇼, 비치발리볼 대회, 해양 레포츠 무료 체험, 해양치유 치맥 페스티벌, 플로깅 등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8월3일에는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해양치유 콘서트'가 열려 여름밤 힐링의 시간을 선사한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해양기후, 해수, 머드, 해



조류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국내 최초의 해양치유 시설이다.

완도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양치유센터 이용객을 대상으로 음식점 할인 쿠폰과 주요 관광지 무료·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현철 완도군 관광과장은 "이번 여름휴가는 명사십리 해변에서 무더위를 날리고 해양치유센터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웰니스 관광지 완도로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